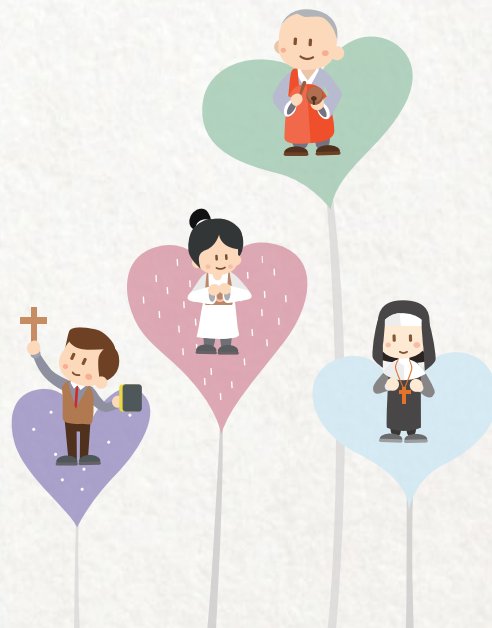


# 서울시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 1 발간사 · 03
- 2 종단대표 축하인사 · 04
- 3 살사프로젝트 소개 · 08
- 4 살사프로젝트 발자국 · 10
- 5 살사프로젝트 방향성 · 18
- 6 참여 종교단체 소개 · 20
- 7 사업별 사진 · 23
- 8 언론보도 자료 · 35
- 9 부록 · 41



##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서울시가 생명사랑과 자살예방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종교계 여러분들의 깊은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살자, 사랑하자”라는 멋진 외침의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많은 시민의 삶과 사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캠페인 뿐 아니라 유가족 보살핌, 그리고 온갖 종교적 집회에서의 만남과 회합에서 생명의 가치를 강조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힘을 얻습니다.

살사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 번창해서 서울시민의 생명사랑 네트워크의 큰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고, 한 분이라도 더 생명을 얻고 삶과 사랑을 향해 구제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작은 예산에 불과하지만 성심성의껏 함께 해주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어 송구합니다. 앞으로도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일인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 기독교

사람이 자살하는데 그 이유가 한, 두 가지로 요약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간결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수만 가지 이유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예방도 수만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한,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면 그에 맞는 예방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깐요. 그 고민과 생각들에 맞는 예방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자살예방은 전문가들과 함께 동네의 마트 직원, 우유 배달원, 태권도 도장 관장,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등등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종교인이나 그 기관들의 역할이 큼니다. 아무래도 삶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인 해답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잘 들어주신 분들이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살예방이 가능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살사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원과 관심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이프호프도 '살사 프로젝트'로 함께 한 지 벌써 5년입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가장 큰 덕을 보았습니다. 어설퍼던 운영에도 잘 지도를 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5주년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살사 프로젝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 맛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삶의 소망과 사랑의 축복을 주시길 기원 드립니다.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  
조성돈

## 불교

낮 빛 청정한 가을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 법회'를 열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올해도 '위로 법회'를 통해 남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매년 특화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이들의 말씀 한마디, 눈빛 한 조각이 우리가 하는 일의 소중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동안 자살예방 전문교육을 통해 만난 종교지도자들과 자치구 중심 살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지킴이양성교육,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서비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나라 대표 종단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주민 밀착형 지역사회 자살 안전망 형성을 위한 '살(자)사(랑하자)'프로젝트'를 통해 자살예방의 중요성과 자살유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살사운영이 불교상담개발원 활동의 큰 축으로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현재 자살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그리고 새로운 활동 모색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한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며, 서로 배우고 돕는 상호 작용이 돋보이는 '살(자)사(랑하자)'프로젝트 활동의 성장을 무한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유형무형으로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멋진 자료집 발간으로 새로운 디딤돌 위에서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 원불교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시 살자프로젝트를 시작한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자살자 수 1위국이라는 오명은 민·관이 모두 협력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어할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업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종단 연대를 결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울시 당국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간 서울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원불교 동근마음상담연구센터도 종단 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 위기자들을 위해 눈높이 맞춤 형태의 개인상담 부터 집단·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캠페인·특화사업·예방교육·주부·노인들의 우울 예방교육 및 상담과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등 그리고 올해 5주년열린 포럼개최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에게는 아직도 자살위기상황이 도처에 잠재되어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코로나 19시기에 있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정신의 세력이 더욱 약화되고 생명경시현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따스한 훈풍의 시간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희 상담센터 임직원들은 생명존중문화 정책을 하루 속히 안착시키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서울시 살자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뜻깊고 보람된 시간들이 있었기에 원불교도 종단의 중요한 사명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5주년을 축하하며 좀 더 폭넓은 생명문화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원불교동근마음상담연구센터장  
정경숙

## 천주교

안녕하세요, 천주교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의 차바우나신부입니다.

서울시와 4대 종단이 함께 마음을 모아 자살예방사업을 연계하여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자살 안정망 형성을 위하여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4대 종단이 보다 더 많은 사업으로 우리의 손길과 마음을 기다리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우리의 돌봄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더 외롭게 지내셔야 하는 한 해 이기도 합니다.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현상 속에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보듬어주는 연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11,28-30) 말씀하시며 당신의 사랑과 진리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삶의 여정 안에 의사가 필요한 이에게 당신이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흔히 가난한 이가 가난한 이의 마음을 알고, 상처 입은 이가 상처받은 이의 마음을 안다고 합니다. 그 분은 인생의 여정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긍정의 에너지로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동안 자살예방을 위하여 위기자 상담 및 캠페인, 유가족돌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합하여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욱 더 오늘도 어디선가 보이지 않은 상실과 아픔 속에 있는 힘든 이와 외로운 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상실의 아픔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모든 유가족 여러분들이 더욱 따뜻한 연대와 지지 속에 새로운 삶을 걸어가시길 함께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장  
차바우나

살자  
서울시 사랑하자  
프로젝트

살사프로젝트  
소개



살사프로젝트의 소개



-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의 줄임말
- 서울시와 종교단체가 함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서울시민 자살예방 안전망을 확립하고자 함

➤ 살사프로젝트는 “살자! 사랑하자!”의 줄임말로 서울시와 종교단체가 함께 주민 밀착형 지역사회자살안전망을 형성하여 자살사고를 감소하도록 4개의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 2015년 5월, 살사프로젝트 협약 후 종교단체와 자살의 시도자 연계를 위한 전문 종교 신앙상담 전화를 시작으로 2020년 자살예방과 관련된 주요사업이 세분화되어 확장되었다.

살사프로젝트의 배경



- 서울시의 높은 자살률
-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의 시도자 · 유족관리
- 서울시 민선 6기 101개 공약

➤ 2014년 당시 서울시 자살률은 24.7명(2,467명)으로 전국대비 27.3명(13,836명)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019년에도 역시 22.5명(2,151명)으로 전국 26.9명(13,799명) 자살률보다 낮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6년 간(2014년~2019년) 서울시 자살자 수는 총 13,419명 이었고,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1개의 동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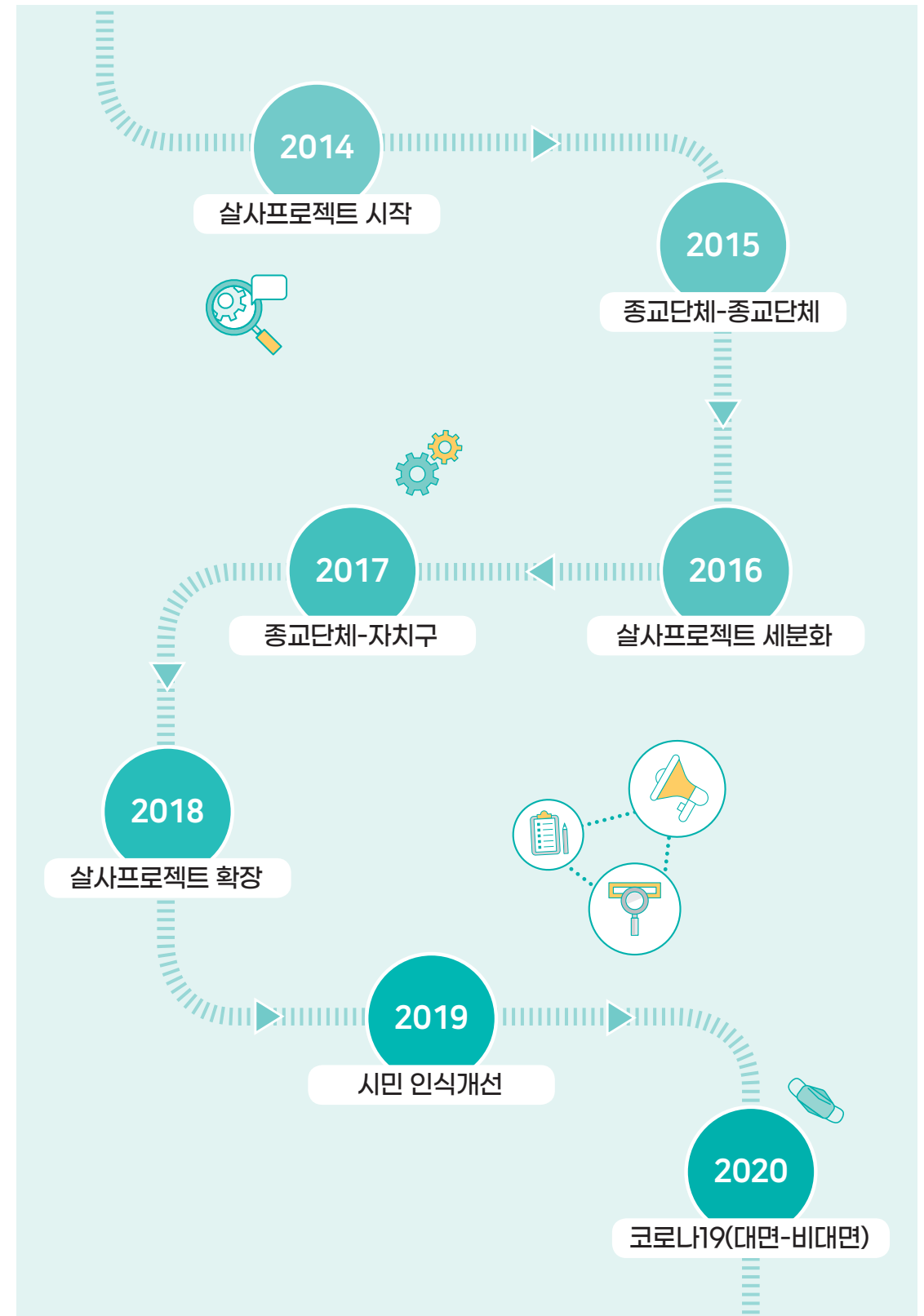
➤ 2014년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자살예방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자 종교계와 연대하여 “종교계와 함께하는 생명존중 활동”을 준비하였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살사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였다.

살자  
서울시 사랑하자  
프로젝트

살사프로젝트  
발자국



## 한 눈에 보는 연도별 살사프로젝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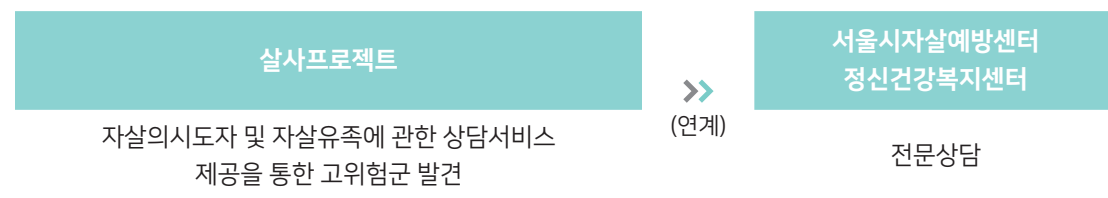




## “살(자)사(랑하자) 프로젝트”

높은 자살률(전국 26.5명, 서울 23.2명)<sup>1)</sup> 2015년 통계청 자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서울시와 종교계가 함께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행한 첫 사업은 “자살 유족”<sup>2)</sup>을 위한 상담서비스와 종교예식, 심터 및 특화 프로그램이었다.

종교단체 내 자살의시도자 및 자살유족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발견된 자살 고위험군 발견 시 전문적인 위기개입을 위해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상담과 종교예식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각 종교단체의 종교예식은 자살예방과 관련된 타 프로그램으로 많이 유입되어 필요한 정보 및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상담과 종교예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서의 쉼과 휴식 그리고 살사프로젝트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각 종교단체는 각자의 분위기와 대상자 요청에 의해 콘서트(기독교), 예불(불교), 치유프로그램(원불교), 피정(천주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2015년 살사프로젝트 실적

구분	상담		종교예식	특화프로그램
	전화	대면		
2015	138명 / 164건	59명 / 194건	450명 / 3건	362명 / 4건

1) 2015년 통계청 자료

2) Preventing Suicide How to Start Survivors' Group, WHO, 2008. 1~30p. IASP, 자살위험성이 일반인의 5~10배

## “세분화를 위한 소통”

살사프로젝트의 확장과 세분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원활한 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협의를 통해 2016년도의 사업을 계획하였다. 사업수행·예산집행 관련된 행정문서의 통일성을 갖추었고 효과적인 운영과 각 종교단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도는 기존에 기독교와 불교만 진행하던 대면 상담 서비스를 원불교도 시작한 해이며 2015년도와 비교하여 상담 이용률이 많이 증가 하였다. 전화상담의 이용자 수는 10.7배 정도 증가하여 이용 건 수도 9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불교의 상담이 추가된 대면상담에서도 이용자 수, 이용 건 수 모두 2.6배 증가를 보였다.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2015년, 2016년 상담 건 수<sup>3)</sup>

구분	전화상담		대면상담	
	이용자 수	건 수	이용자 수	건 수
2015	138명	164건	59명	194건
2016	1,478명	1,478건	153명	514건

특히, 프로그램의 일정이나 횟수를 조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삼는 계기가 되었다.

### 종교예식 건 수

구분	2015	2016
종교예식 건 수	4건	14건
참여인원	362명	333명

3) 출처 : 2015년, 2016년 살사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종교단체 - 자치구(2017년)

## “자치구 중심의 살사프로젝트 프로그램 활성화”

2017년도 살사프로젝트는 자치구 중심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종교단체가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자치구 내 종교단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치구 보건소와 주민센터의 업무협약식,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민에게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지역자살예방협의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자치구와 종교단체 주요 활동내용

- 보건소-종교단체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간 업무 협약
- 대상자의 위로와 회복(치유)을 위한 종교예식 개최 (예배 및 천도재 등)
-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준사례관리 등)
- 보건소-종교단체의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
- 자살수단(번개탄) 접근성 차단을 위한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 사업 참여
- 보건소 내 진료의사 자살예방 활성화 위한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참여

그 결과, 총 7곳의 자치구와 종교단체가 협약을 맺고 지역밀착연계사업, 지역보건 및 캠페인,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무료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를 진행하였다.

### 2017년 자치구 종교단체 협약

추진내용	협약기관	협약기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밀착연계사업</li> <li>• 정기모임/교육[5회]</li> <li>• 지역보건 및 캠페인</li> <li>• 지역 상담 및 교육활동</li> <li>• 지역특화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동지회 (오○종 목사)</li> <li>• 강북지회 (박○철 목사)</li> <li>• 중랑지회 (정○식 목사)</li> <li>• 영등포지회 (장○원 목사)</li> </ul>	7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과정 운영</li> <li>• 통합간담회</li> <li>• 무료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li> <li>• 자치구 활성화 업무협약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포구 성림사</li> <li>• 송파구 불광사</li> <li>• 양천구 국제선센터</li> </ul>	

살사프로젝트 확장(2018년)

## “경계를 넘어 화합을 위한 열린포럼 개막”

2018년에는 각 종교단체의 생명에 대한 윤리와 가치관을 확인하고 방향성을 잡기 위한 “열린포럼”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서울시와 종교계가 자살예방을 위해 서로 활동한 내용의 의미를 탐구하고 향후 서울시와 종교계가 자살예방을 위해 변화해야 될 역할이나 서로 공유해야할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민 및 시민단체, 관련 실무자들이 포럼을 통해 논의를 하고자 실시하였다. 2018년도는 기독교의 주관으로 진행하였고 2019년 불교, 2020년 원불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처음 진행된 열린포럼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2018년 살사프로젝트 열린포럼 내용

연도	주관	추진내용	참여인원
2018	기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생명과 영성(열)</li> <li>• 일정 : 10월 22일 13:30 ~ 17:00</li> <li>• 장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li> <li>• 진행내용 : 종교계 자살예방 실천선언문 낭독, 종단별 강의 등</li> </ul> <div>1부 주제</div> <p>“종교, 생명의 길을 함께 걷다”</p> <div>2부 주제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영적역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독교 “생명을 살리는 개신교회의 역할과 책임”</li> <li>• 조계종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사회적 역할”</li> <li>• 원불교 “온전한 삶을 위한 원불교의 죽음교육”</li> <li>• 천주교 “생명존중사회를 위한 가톨릭교회의 역할방향”</li> <li>•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경과보고, Q&amp;A 및 건의사항</li> </ul>	350명

“생명과 영성(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사프로젝트 참여 종교단체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고 열린포럼에 참여한 서울시민 및 종교단체, 관련 실무자들에게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살사프로젝트를 통한 시민인식개선(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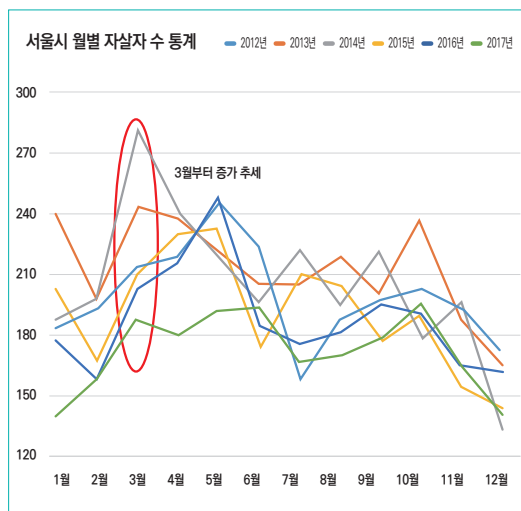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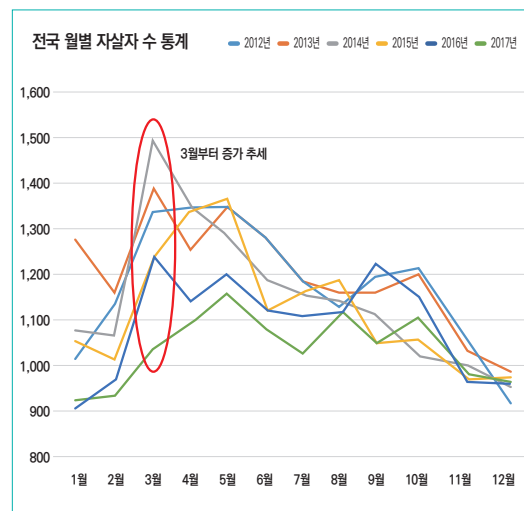
### “인식개선과 홍보의 활성화”

2019년, 살사프로젝트가 맞은 새로운 과제와 시도는 “인식개선 향상과 홍보”였다. 인식개선은 계속해서 진행해온 서울시민 대상에서 살사프로젝트 참여종교단체의 성직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자살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성직자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다. 각 종교단체에서 1회씩 시행하였고 기독교 60명, 불교 15명, 원불교 78명으로 총 153명의 성직자가 교육에 참여 하였으며 자살과 생명윤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성직자 인식개선교육 실적

주요사업	기독교	조계종	원불교	총계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8/31</li> <li>대상 : 한국교계연합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10/19</li> <li>대상 : 불교계 승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9/10</li> <li>대상 : 교단 내 교무</li> </ul>	-
실시건수	1건	1건	1건	3건
참여인원	60명	15명	78명	153건

홍보는 사계절 중 자살률이 높아지는 봄에 진행하였다. 서울시민의 봄철 자살률 감소를 위해 종교계와 함께 봄철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며 주변인들에게 생명존중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자 서울시와 종교계가 함께 기자회견과 선포식을 진행하고 “생명사랑 1004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생명사랑 1004캠페인 자살예방 및 살사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리플릿(시민 12,000부, 기관용 4,000부)을 제작하여 직접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도(2020년)

### “새로운 살사프로젝트 시도”

2020년 살사프로젝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 2015년~2019년과는 다르게 대부분 비대면(온라인) 혹은 대면(오프라인)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살사프로젝트 열린포럼 또한 대면과 비대면 모두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2020년 열린포럼은 “코로나 시대의 생명존중과 종교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통해 코로나 시대의 각 종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그로 인한 어려움, 종교단체의 생명관과 생명윤리를 통해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대응하여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4대 종교단체의 화합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2020년 열린포럼 의미가 더해졌다. 2020년 열린포럼 내용과 공동선언문 발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20년 살사프로젝트 열린포럼 내용

연도	주관	추진내용	참여인원
2020	원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 코로나시대의 생명존중과 종교계의 역할</li> <li>일정 : 10월 13일 (화) 10:0~12:00</li> <li>장소 : 소태산기념관 기념홀</li> <li>진행내용 : 주제토론, 서울시 및 각 종단 축하메시지, 공동선언문발표 등</li> <li>진행방법 : 온라인(유튜브), 오프라인(현장, 소수)</li> </ul> <div> <b>토론 주제 [코로나시대의 생명존중과 종교계의 역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코로나 시대의 종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li> <li>② 각 종교의 생명관 및 생명윤리</li> <li>③ 위기에 대응하여 각 종단이 해왔던 노력과 활동이나 계획</li> </ul> </li> <li>화합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div> 1. 우리 종교계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생명보듬이가 되겠습니다.  2. 우리 종교계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 생명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3. 우리 종교계는 너와 나. 만물이 서로 소중하고 감사한 공동운명체임을 알아 지구의 삶이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우리 종교계는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 그 자체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작용의 산물임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div> </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하 공연</li> </ul>	170명

살자  
서울시 사랑하자  
프로젝트

살사프로젝트  
방향성



## “초심이 중요한 이유”

‘모든 삶이 보호받는 서울’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의 비전을 향해 2020년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를 활용하여 살사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살사프로젝트에 참여중인 종교단체 간, 종교단체와 자치구의 유관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우리모두는 연결되어 있었고 모두가 서로를 돕고 있었다. 그 안에서 우리 살사프로젝트 참여 종교단체는 생명사랑 존중문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시민의 자살률 감소와 자살예방환경 활성화,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작한 살사프로젝트는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의 추진 목표와 방향성이 있다면 꾸준한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사각지대에서의 대상자 발굴을 통한 연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은 살사프로젝트의 시행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것을 해왔다고 자만 하지 말고 꾸준히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다.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그들을 먼저 찾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우리 살사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하였고, 계속 섬기는 마음으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초심이 중요한 시점이다.



살자  
서울시 사랑하자  
프로젝트

살사프로젝트  
참여 종교단체 소개



함께 걷는 사람들

LifeHope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소개	<p>“생명은 그 어느 가치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함께 라이프호프를 만들어 더욱 많은 이들과 함께 생명보듬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가능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은 이 땅에 생명으로 피어날 것입니다.</p>		
주요사업	무지개 자살예방교육, 생명보듬함께걷기, 마음이음 예배, 생명보듬주일, 라이프키퍼캠프, 희망벽화 그리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19길 5, 201호		
연락처	Tel) 070-8749-2114, Fax)02-2632-2005		
대표자	조성돈	담당자	고영수

대한불교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소개	<p>부처님의 가르침을 상담이라는 방편에 실어서 널리 펼침으로써 모든 존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세상을 밝히고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p>		
주요사업	불교상담 연구개발, 불교상담심리사 양성 및 관리, 자살예방사업, 상담현장지원, 대외활동, 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운영 등		
주소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 59, 1층		
연락처	Tel) 02-737-7378, Fax) 02-737-8802		
대표자	선업	담당자	이해청



소개	2007년 상담활동과 상담교육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인상담, 부모교육, 심리검사 및 상담자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동작교육청 Wee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한 축을 담당해왔고, 원불교 청소년국과 함께 “청소년 마음공부 인성교육 ASM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고 각 학교의 학급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소태산기념관의 입주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본 센터 상담사들은 앞으로도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개인상담(모래상자치료), 집단상담(부부 및 가족, 직장인, 노인, 교회단, 출장상담), ASM청소년인성교육, 자살예방프로젝트		
주소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번지 9층		
연락처	Tel) 070-7576-4438, Fax) 070-7543-4439		
대표자	정경숙	담당자	김해정



소개	자살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자살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분들을 위해 생명친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그동안 금기시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살은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자살은 우리모두의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이를 간과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나눔을 이웃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 김수환 추기경님에 의해 설립되어 국제협력, 국내사회복지지원, 생명운동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톨릭 단체로 자살예방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슬픔 속 희망찾기(월례미사, 1박2일 피정, 정기모임), 고인을 위한 기도, 캠페인/교육, 마음돌봄		
주소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 59, 1층		
연락처	Tel) 02-318-3079, Fax) 02-2265-2955		
대표자	차바오로	담당자	홍성경

살자  
서울시 사랑하자  
프로젝트

## 살자프로젝트 사업별 사진





2015



마음이음 예배



마음이음 음악회



맨땅의 청춘 4050 마음이음 콘서트



2016



마음이음 예배



마음이음 일일수련회



성직자 인식개선 포럼



자살예방교육

2017



자살예방 캠페인 활동 (강북지회)



지회 살사 협약식



마음이음 수련회



생명보듬 주일 예배 (중랑지회)

2018



마음이음 예배



생명기도회 및 자살예방 캠페인



마음이음 수련회





Life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2019



자살예방 캠페인 활동 (마포지회)



생명보듬 선포식



생명투어 자살예방 캠페인 (영등포지회)



영등포지회 루프탑 옥상별빛 콘서트

2020



마음이음 예배



생명기도회 및 자살예방 캠페인



자치구 중심 지회장 역량강화 교육



종교리더 자살예방 전문교육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2016



위로 법회



자살예방 세미나

2017



자치구 활성화 업무협약



템플스테이



정신건강상담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2018



자살예방 교육



살사프로젝트 간담회



위로 법회



템플스테이

2019



상담서비스 상담사 교육



성직자 인식개선 교육



생명문화 힐링콘서트



템플스테이

2020



종교 예식



자치구 자살예방 교육



종교리더 자살예방 전문교육



자치구 업무협약식 (동작구)





원불교 동근마음상담연구센터

2016



생명존중, 감사, 보은행 캠프



상담역량강화 교육



군 특화프로그램



2017



종교예식 (천도재)



사례 슈퍼비전



군 자살예방교육



군 생명존중 캠프

2018



특별 천도재



천도재



중년여성 우울증 특강



성직자 인식개선 교육

2019



어르신 특화 프로그램 (집단)



여고생 특화 프로그램 (집단)



여학생 특화 프로그램 (개인)



활동 평가회



원불교 동근마음상담연구센터

2020



종교리더 역량강화 교육



특화프로그램 (영상)



위로 법회



열린포럼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2016



특화프로그램 (해바라기슬픔돌봄 사별가족 피정)

2017



특화프로그램 (피정)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2018



특화프로그램 (피정)

2019



특화프로그램 (피정)

2020



특화프로그램 (피정)

살자  
서울시 사랑하자  
프로젝트

살사프로젝트  
언론보도 자료





☞ 보도자료

☞ 2014

서울시-종교계의 토론회 관련 기사

**서울시, 자살예방 위해 종교계와 함께 토론회 개최**

12월 오후 2시 '살(자) 사(랑)하(자)' 토론회 열린다  
(서울=뉴스1) 김민준 기자 | 2014-12-04 09:00 송고

가사포기, 내미친아들, **살(자) 사(랑)하(자)**, **살(자) 사(랑)하(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살예방을 위해 종교계와 함께 12월 오후 2시부터 서울시장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살(자) 사(랑)하(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종교계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종교인들이 자살 예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토론회는 약 6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자살 신청을 한 2000명의 시민과 기독교, 불교, 성교회 등 7대 종교 단체 종교인, 장로회, 성서, 시, 행성 1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가톨릭신문**

가톨릭신문은 세계교회, 공복교회, 문화/종교, 통일/평화, 교육/인성, 경제/환경, 생활, 사회/사법, 정치/국정, 기획/특집, 시사

자살예방 위해 종교계-정부 힘 모았다  
한국종교인명회의와 목회자 자살예방 종교 연합, 생명존중문화 조성 인식개선 캠페인 등 공동 추진키로  
서울시종정자살예방센터 등도 각 종교계와 협력 진행

발행일 2014-09-28(제2014-09-28)

이 기사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신문을 신문 보내기 8원

종교계가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 서울시와 뫼쳤다.

☞ 2015

기독교 종교예식 및 업무협약

**국민일보 마션 라이프**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자살유가족과 마음이음예배'

입력 | 2015-08-04 09:49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오는 16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대림교회(김종덕 목사)에서 '자살유가족과 함께 하는 마음이음예배'를 드린다. 1부 예배에서는 장로인 현의현(연세대학교신학과) 목사, 2부 예배에서는 목회자 2부에서는 독일 크리스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자살 유가족뿐 아니라 목회자와 일반 성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5년 5월 '자살' 유가족 위로예배로 시작된 마음이음예배는 예정 한 차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다(02-8749-2114).

박재현 기자

**국민일보 마션 라이프**

라이프호프, 해솔중학교와 자살예방 업무협약

입력 | 2015-09-09 17:36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경기도 파주 해솔중학교와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활동을 협력하는 '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사간). 라이프호프는 교회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강의를 제공하며, 해솔중학교는 오는 26~29일 1학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하고,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행사 등에서 중점적으로 한다.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인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하나가 돼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불교 특화프로그램 및 종교예식 관련 기사]

**dongguk UNIVERSITY 불교신문**

살사프로젝트 템플스테이

발행일 2015-06-10 10:12 | 댓글 0

불교상당개발원, 산복사서

2015년 서울시가 주관하는 '자살예방,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이번 '살(자) 사(랑)하(자)' 일환으로 불교상당개발원(원장 도원스님)이 지난 7월25일부터 26일까지 여주 신복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자살유가족과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심어주고 상처를 아루민쳐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또한 실무자들이 상담을 통해 겪었던 감정의 피로를 해소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자살에 대한 상담심리적 접근을 통해 자살시도자와 고위험군, 자살유가족에 대한 자살상담 사례를 직접 다뤘다.

**생명존중을 위한 천도재와 심리극**

김민준 기자 | 2015-09-11 19:30 | 수정 2015-09-14 11:00 | 댓글 0

BBS 생명존중을 위한 천도재와 심리극

☞ 2016

불교 자살예방 세미나 관련 기사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자살예방 세미나**

김민준 기자 | 2016-11-22 16:40 | 수정 2016-11-23 09:59 | 댓글 0

다음달 7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자살, 어떻게 볼 것인가

불교상당개발원, 12월7일 세미나

불교상당개발원(원장 무관스님)은 오는 12월7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자살, 불교상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함께 하는 '서울시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상담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자살예방 상담사례와 불교적 대처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한국종교인명학회(회장 서광스님)가 불교에서 본 자살과 자살예방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연다. 이어 불교상당개발원장 무관스님이 자살유가족을 위한 불교적 상담 사례를, 황선정 마음여행 심리상담연구소장이 '불교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 상담법'에 접근할, 이병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가 '불교계 자살예방 대처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dongguk UNIVERSITY 불교신문**

자살, 어떻게 볼 것인가

김민준 기자 | 2016-11-23 10:35 | 댓글 0

불교상당개발원, 12월7일 세미나

불교상당개발원(원장 무관스님)은 오는 12월7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자살, 불교상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함께 하는 '서울시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상담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자살예방 상담사례와 불교적 대처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한국종교인명학회(회장 서광스님)가 불교에서 본 자살과 자살예방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연다. 이어 불교상당개발원장 무관스님이 자살유가족을 위한 불교적 상담 사례를, 황선정 마음여행 심리상담연구소장이 '불교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 상담법'에 접근할, 이병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가 '불교계 자살예방 대처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 2017

살사프로젝트 성과보고회

오우에는 영등포구 주요 청정 현안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15번째 자치구 순회 현장방문이다. 장소년목회문화센터 유스스퀘어, 문래동 공공공지, 대림3유수지, 옛 방송통신대 남부학생센터 등을 방문한다.

이제 앞서 오전 11시 AW컨벤션센터(옛 하림)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리는 '제1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평가보고회'에 참석해 복지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사한다.

12시엔 국제선센터 본관 앞에서 열리는 불교계와 함께하는 자살예방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한다. 서울시는 2013년 기독교, 원불교, 조계종, 천주교 4대 종교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nevermind@

기독교 특화프로그램

**NEWSJOY**

라이프호프, 자살유가족수련회

12월 2-3일, 이천 에덴하임리조트에서 개최

뉴스조이(이영민 기자) 사(랑)하(자)는 시민을 위한 '위로'의 행사' 열린다.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 라이프호프(대표 김민준)가 12월 2-3일, 경기도 이천 에덴하임리조트에서 '자살 유가족 수련회'를 개최한다.

불교 종교예식 및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교육 관련 기사

**dongguk UNIVERSITY 불교신문**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불교상당개발원 '스스로 떠난 이들을 위한 위로법'

**법보신문**

서울시조계종, 자살예방 전문가 교육 실시

김민준 기자 | 2017-06-22 15:51 | 댓글 0

당신의 1만엔, 2만엔에 새 삶이 됩니다

6월1일부터 3차례 강의

서울시와 조계종이 자살을 미리 막는 전문가 양성교육에 나선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불교상당개발원(원장 가승 스님)이 6월5일, 10일, 11일 오전 10시 서울 법보스테이호텔 3층 3층에서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자살예방센터가 4대 종교와 연계해 진행 중인 자살예방사업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일환이다.



2018

살자프로젝트 열린포럼



기독교 자치구 중심 활성화 협약



불교 종교예식 및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관련 기사



2019

살자프로젝트 열린포럼 및 봄철 자살예방 캠페인 관련 기사



기독교 종교예식 관련 기사



불교 종교예식 관련 기사



원불교 종교예식 관련 기사





● ● ●



● ● ●



● ● ●



## 부록



부록 1 2015년~2020년 종교단체별 진행사업

연도	주요사업		기독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
2015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상담전화	○	○	-	-
		전담팀	○	○	○	-
	종교예식		○	○	○	-
	특화프로그램		○	○	○	○
2016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상담전화	○	○	-	-
		전담팀	○	○	○	-
	종교예식		○	○	○	-
	특화프로그램		○	○	○	○
	종단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	○	○
2017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상담전화	○	○	-	-
		전담팀	○	○	○	-
	종교예식		○	○	-	-
	특화프로그램		○	○	○	○
2018	자치구 중심 살사프로그램 활성화		○	○	-	-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상담전화	○	○	-	-
		전담팀	○	○	-	-
	종교예식		○	○	○	-
	특화프로그램		○	○	○	○
	자치구 중심 살사프로그램 활성화		○	○	○	-
2019	종교예식		○	○	○	-
	특화프로그램		○	○	○	○
	종교리더 자살예방전문교육		○	○	○	-
	자치구 중심 살사프로젝트 활성화		○	○	○	-
	열린포럼		-	-	○	-
	살사프로젝트 홍보		○	○	○	○
2020	종교예식		○	○	○	-
	특화프로그램		○	○	○	○
	종교리더 자살예방전문교육		○	○	○	-
	자치구 중심 살사프로젝트 활성화		○	○	○	-
	열린포럼		-	-	○	-
	살사프로젝트 홍보		○	○	○	○

부록 2 최근(2018년~2020년) 살사프로젝트 실적

연도	주요사업		기독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	총계
2018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상담전화	196건	205건	-	-	401건
		전담팀(대면)	305건	231건	-	-	536건
	종교예식		10건/187명	1건/38명	2건/215명	-	13건/440명
	특화프로그램		1건/26명	1건/14명	11건/152명	1건/14명	14건/206명
	종교 성직자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	1건/85명	-	1건/85명
	자치구 중심 살사프로그램 활성화	자치구협약	1건	0건	0건	-	1건
		간담회 (교육)	12/652명	5회/197명	4건/35명	-	21건/884명
		캠페인	3	0건	5건	-	8건
2019	살사프로젝트 열린포럼		1건/350명	-	-	-	1건/350명
	종교예식		9건/164명	1건/20명	2건/183명	-	12건/367명
	특화프로그램		5건/122명	1건/18명	106건/234명	1건/16명	113건/390명
	성직자인식개선교육		1건/60명	1건/15명	1건/78명	-	3건/153명
	자치구 중심 살사프로그램 활성화	협약	1건	1건	1건	1건	4건
		교육	33건/764명	4건/140명	5건/230명	-	42건/1134명
		간담회	9건	4건	7건	-	20건
		캠페인	27건	1건	9건	-	37건
2020	살사프로젝트 열린포럼		-	1건/150명	-	-	1건/150명
	종교예식		10건/129명	1건/27명	1건/80명	-	12건/236명
	특화프로그램		2건/72명	2건/20명	3건/46명	2건/16명	9건/154명
	종교리더 자살예방전문교육		2건/73명	1건/29명	2건/35명	-	5건/137명
	자치구 중심 살사프로그램 활성화	협약	1건	1건	-	-	2건
		교육	13건/152명	4건/102명	-	-	17건/254명
		간담회	3건/22명	-	-	-	3건/22명
		캠페인	10건/119명	4건/147명	5건/380명	-	19건/646명
	살사프로젝트 열린포럼		-	-	1건/170명	-	1건/170명
	살사프로젝트 홍보		16건 / 2종류	3건 / 2종류	-	2건 / 1종류	21건 / 5종류

역대 살자프로젝트 열린포럼 내용

연도	주관	추진내용	참여인원
2018	기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 생명과 영성(얼)</li> <li>일정 : 10월 22일 13:30 ~ 17:00</li> <li>장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li> <li>진행내용 : 종교계 자살예방 실천선언문 낭독, 종단별 강의 등</li> </ul> <p><b>1부 주제 [종교, 생명의 길을 함께 걷다]</b></p> <p>“종교, 생명의 길을 함께 걷다”</p> <p><b>2부 주제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영적역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독교 “생명을 살리는 개신교회의 역할과 책임”</li> <li>조계종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사회적 역할”</li> <li>원불교 “온전한 삶을 위한 원불교의 죽음교육”</li> <li>천주교 “생명존중사회를 위한 가톨릭교회의 역할방향”</li> <li>‘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경과보고, Q&amp;A 및 건의사항</li> </ul>	350명
2019	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 위로</li> <li>일정 : 5월 30일 (목) 13:30~16:00</li> <li>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li> <li>진행내용 : 삶과 죽음, 자살예방에 대한 소통시간, 위로의 기도와 문화행사</li> </ul> <p><b>1부 주제 [삶과 죽음에 대한 열린 TALK]</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 종단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 소통시간</li> <li>① 각 종교는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나요?</li> <li>②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li> <li>③ 자살하면 사후에 어떻게 되나요?</li> <li>④ 자살충동이 들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li> <li>⑤ 왜 봄에 많이 자살 하나요?</li> </ul> <p><b>2부 주제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상시청 - 라이프타임X김보통‘살아야할 이유같은건’</li> <li>위로의 기도문 낭독</li> <li>문화행사 - 샌드아트 공연</li> </ul>	150명
2020	원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 코로나시대의 생명존중과 종교계의 역할</li> <li>일정 : 10월 13일 (화) 10:00~12:00</li> <li>장소 : 소태산기념관 기념홀</li> <li>진행내용 : 주제토론, 서울시 및 각 종단 축하메시지, 공동선언문발표 등</li> <li>진행방법 : 온라인(유튜브) 진행</li> </ul> <p><b>토론 주제 [코로나시대의 생명존중과 종교계의 역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주제</li> <li>① 코로나 시대의 종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li> <li>② 각 종교의 생명관 및 생명윤리</li> <li>③ 위기에 대응하여 각 종단이 해왔던 노력과 활동이나 계획</li> <li>공동선언문 발표</li> <li>축하 공연</li> </ul>	170명

부록 4 언론보도 내역 정리

2014

<https://www.news1.kr/articles/?1844771>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62966](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62966)

2015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518>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27>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2588>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237>

2016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03>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159>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072>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232>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9062>

2017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8166>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5747>  
<https://www.news1.kr/articles/?3179617>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141>

## 2018

[http://www.cpbk.co.kr/CMS/news/view\\_body.php?cid=736865&path=201810](http://www.cpbk.co.kr/CMS/news/view_body.php?cid=736865&path=201810)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747>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250>

## 2019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241428122869](https://www.ytn.co.kr/_ln/0103_201906241428122869)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147>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7560>  
<http://www.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44>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06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57763&code=61221111&cp=nv>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933>

## 2020

<http://www.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60>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98214](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98214)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79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0456&code=23111113&cp=nv>

## MEMO



## 서울시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

발 행 일 | 2020년 12월

발 행 인 | 김현수

발 행 처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전 화 | (02) 3458-1000  
| 마음이음상담전화 1577-0199

팩 스 | (02) 3458-1099

홈 페이지 | <http://suicide.or.kr>

---